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수 설계에 관한 연구

진 대 연*

— < 次 例 > —

- I. 서론
- II. 주요 개념의 검토
- III.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전제와 고려 사항
- IV. 역사 문화 교수의 실례
- V. 결론

I. 서론

국내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 비하면 30여 년이 경과한 현재의 한국어 교육은 괄목할 만한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 성장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늘어나고 그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게 됨으로써 한국어 교육이 확산된 것이다.

국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한국의 경제 성장 이미지와

* 호원대학교 한국어학부 교수
<http://dx.doi.org/10.17313/jkorle.2016..38.223>

영화나 드라마 등의 ‘한류’ 상품을 통한 한국 문화 경험(KOTRA, 2011: 14-34)에 의해 촉발된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은 취업, 유학 등의 동기로 발전하거나 적극적인 한국어 학습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와 문화의 표층적인 ‘이미지’나 ‘아이콘’이 한국어 초보 학습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기는 하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을 이해하게 하려면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이해 능력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다. 특히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단순히 기능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때 사회 문화적 소재와 주제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서 도구와 내용으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역사라는 과정 속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며 그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양식과 문화적 성취는 모두 역사적 소산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를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한국 문화 현상의 이면(裡面) 또는 기저(基底)까지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만큼 더 수준 있는 한국어 실력을 기르게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를 교수하고자 할 때 무엇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 문화의 교수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문에서는 우선 이 글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인 역사 문화, 교수 설계, 내용 중심 교수에 대해 검토하고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전제와 고려 사항을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과 국외 소재 재외동포 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 문화 교수의 실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II. 주요 개념의 검토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의 교수 설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동안 관련 논의가 별로 없었던 역사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닌 내용학의 성격이 강한 역사 문화를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반 교육학의 교수 설계와 언어 교육학의 내용 중심 교수 개념을 검토해 봄으로써 두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역사 문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또는 이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며 문화는 포괄적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양식과 이의

1) 이 부분은 진대연(2015)에서 역사 문화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논의한 내용 중 일부를 바탕으로 삼아 논지를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역사 문화를 ‘역사 관련 문화’라고 볼 수도 있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고 이 글에서도 그러한 견해를 수용하지만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차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누적으로 얻은 성취를 뜻한다. 그런데 역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모든 경험과 성취를 아우르며 현재 영위되고 있는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 유산으로서 현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살아 있는 과거’로서 현재의 문화를 이루는 기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념이 상통하는 것으로 볼 때 역사 문화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 문화를 ‘역사와 문화(history and culture)’라는 두 개념의 병기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역사와 문화를 서로 별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역사 문화 유산, 역사 문화 도시, 역사 문화 자료 등과 같이 두 개념이 역사 문화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여서 사용되기도 한다. 역사와 문화는 공히 축적성과 변동성을 속성으로 하고 특정 지역이나 사회를 전체로 하는 등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두 개념을 포괄해 역사 문화라 칭해도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사 문화는 역사의 구성 요소로 남게 되는 문화, 즉 ‘역사 속의 문화(cultures in history)’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통시대’라 할 수 있고 문화는 그 속에서 시기, 지역, 집단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있는 ‘공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는 이전 세대로부터 계승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에 주목하게 되면 역사 문화는 바로 역사 속의 문화라 할 수 있다. 특정의 문화가 인물이나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셋째, 역사 문화란 문화의 형태로 잠재되거나 발현되는 역사, 다시 말해 ‘문화 속의 역사(history in culture)’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역사는 언어, 사상, 종교, 제도, 예술, 과학기술 등과 함께 특정 사회의 문화를 이루는 하위 영역으로 문화에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역사는 특정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의 업적이나 유산으로 현재 보존하고 있는 산물, 즉 명시적인 성취 문화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인 일상 문화 속에도 반영되게 마련이다. 문화를 전통과 현대의 두 범주로 구분할 때도 역사적 속성을 전제로 하는 전통 문화는 실존하는 과거로서 현대인의 행동, 관념, 성취 즉 현대 문화의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일부를 이룬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²⁾ 두 영역을 각각의 개별 범주로 인식하거나 역사를 단순히 문화의 여러 영역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었다. 특히 역사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는 입장은 박동호 외(2006), 김중섭 외(2010) 등과 같이 한국어 교육의 제반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강승혜 외(2010), 조항록(2010), 윤여탁(2013) 등과 같이 한국 문화 교육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룬 연구에서도 주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역사 문화를 ‘문화 속의 역사’로 바라보는 현상은 실제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역사는 주로 수업의 일

2) 강승혜(2012)가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한국 문화 교육 범주의 논문 419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정리한 바 있다. 그 중 한국 역사와 관련된 연구(한국학 포함)가 13편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3)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박동호 외(2006)와 강승혜 외(2010)에서는 한국 역사를 한국 문화의 일부로서 일상문화, 예술문화, 한국문학 등과 함께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김중섭 외(2010)에서는 한국 역사를 문화 지식과 문화 관점의 차원에서 다루며 문화 영역에 역사적 인물, 대략적인 통사, 현대사의 특수성, 한국과 자국의 역사 비교 등 4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부 단원 또는 문화 체험 수업에서 역사적 인물, 사건, 장소 등 단편적인 주제나 소재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교재의 일부에서 역사적 산물의 소개나 옛날이야기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경우 등을 더 언급할 수 있지만 교수-학습 현장에서 역사 문화를 다루는 최대 폭은 대체로 전통 문화 또는 성취 문화의 차원에 머무르는 정도이다. 그 결과 역사는 현대 문화나 일상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수업에서 부차적인 지식이나 일회성의 ‘이벤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문화를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진행하며 쌓아온 산물들 즉 문화재, 역사적 기념물, 역사적 인물과 그 밖의 역사적 문물이라고 보는 견해(조항록, 2010: 307)와도 상통한다. 그런데 역사 문화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각도로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도 크다. 또한 역사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내용 요소로서도 중요하며(신윤경, 2010: 221) 문화의 심층 구조로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필요한 영역이다(Samovar 외, 1998: 111).

2. 교수 설계

교육학대백과사전(서울대 교육연구소, 1999: 291)에 따르면 교수 설계(instructional design)란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다루는 전문 활동으로서 특정한 학습 내용과 특정 대상 학습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교수 방법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처방해 주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으며 종종 ‘교수 개발’과 혼용되거나 그 하위 단계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교수를 분석, 설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적 절차이자 체제 접근에 의한

활동을 일컫는 ‘교수 체제 설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교수 설계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 개발, 실행,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최적의 교수 방법을 처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한 환경과 요구에 적합하게 개발된 교수 설계 모형은 또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환경의 특정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또한 수업 집단의 크기에 따라 서로 상이한 수준의 수업을 계획하도록 고안되게 된다(박숙희 외, 2007: 171-173).⁴⁾

미시적인 차원의 교수 설계는 최선의 수업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바 적절한 교수 매체의 활용을 전제로 하게 된다. 수업은 교수 목적을 구체화하는 특수한 의사소통 과정이며 교수 매체는 교수 목적의 구현 과정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에서건 교사가 교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수 방법을 모색할 때 교수 매체의 선정은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그리고 특히 언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와 같이 ‘내용이 있는’ 수업으로 기능과 내용의 학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수 매체의 선정이 수업의 성과를 가름한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⁵⁾

4) 교수 설계의 범주는 개별 수업에서부터 단위 교과,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상정될 수 있다. 각 차원의 범주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접근하는 교수 설계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 즉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로 구성된다. 이를 줄여서 ADDIE 모형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딕과 캐리(Dick and Carey) 모형, 캠프(Camp) 모형, 라이거루스(Reigeluth) 모형 등과 함께 대표적인 거시 설계 모형으로 꼽힌다(서울대 교육연구소, 1999: 294-297; 박숙희 외, 2007: 189-200).

5) 이는 역사 문화 교수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된다. 역사 문화 수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체나 표층적인 현상에서 시작되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실체와 심층

교수 매체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하이니히 외(Heinich et al., 1996)가 고안한 ASSURE 모형이 많이 원용되는데 이 모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박숙희 외, 2007: 210-217).

- A 학습자 분석(analyze learners)
- S 목표의 진술(state objectives)
- S 방법, 매체 및 자료의 선택(select methods, media and materials)
- U 매체와 자료의 활용(utilize media and materials)
- R 학습자 참여 요구(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 E 평가와 수정(evaluate and revise)

역사 문화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현재적(顯在的) 모습뿐만 아니라 그 저변의 잠재적(潛在的) 기저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범주로서 ‘내용 있는 한국어 교육’을 구성하는 한 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고 교수-학습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역사 문화 교수-학습도 주로 전통 문화와 역사적 사실의 소개 또는 문화 체험에 치중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역사 문화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업을 상정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방편으로서 ASSURE 모형을 활용해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구조가 중시되기 때문이다. 양호환 외(2009: 226-228)에서 언급한 ‘생생하게 다가오는 역사 수업,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사 수업’도 교수 매체 선정의 중요성과 결부시킬 수 있다.

3. 내용 중심 교수

교수-학습될 내용을 교육과정 설계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내용 중심 교수(content-based instruction)’는 언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와 같이 내용학의 성격이 강한 분야를 다루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내용 중심 교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김혜영(2011)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국외 현장의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을 살핀 바가 있다. 그는 내용 중심 교육과정의 사례로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국 현대사 수업을 들고 이 접근 방법이 학습자의 유창성 증대, 내용 학습, 동기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내용 중심 교수는 주로 주제 중심(theme-based) 모형, 내용 보호(sheltered content) 모형, 병존 언어(adjunct language) 모형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강현화 외, 2011: 357; Celce-Murcia, 2001: 306-310) 개별 교수-학습 현장의 특성에 따라 선택 또는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중심 교수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보면 주제 중심 모형은 국내의 대학 부설기관 등에서 주제 관련 텍스트나 활동을 통해 언어 학습을 구성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내용 보호 모형은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문화 수업이나 외국인 성인 학습자 대상의 초청 특강 등에서 채택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용 담당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쉬운 한국어로 학습자에게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병존 언어 모형은 국외 한국학 전공 과정이나 방과 후 이중 언어 교실에서 언어 교사와 내용 담당 교사가 팀 티칭을 통해 각각 언어 교

수와 내용 교수를 하여 두 가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진대연, 2015: 147-148).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 중심 교수에 대해 논한 사례를 보면 강진숙(2010)과 김혜영(2011) 등을 들 수 있다. 강진숙(2010)은 한국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의 틀 안에서 교수-학습의 절차를 설계하였는데 수업 구성의 5단계 즉 도입-제시-연습-활용-정리의 단계를 각각 학습 목표 발견, 언어 학습, 지식·기능·태도 문화 교육 내용 구체화, 지식·기능·태도 문화 교육 내용 심화, 학습 내용 정리 및 평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혜영(2011)은 내용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유용한 기준인 스톨러·그레이브(Stoller & Grabe, 1997)의 6T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6T 지침은 테마(themes), 텍스트(texts), 소주제(topics), 연결고리(threads), 과제(tasks), 이행(transitions)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는 이중 테마, 텍스트, 과제 지침이 한국 현대사 교수-학습에 적용된 예를 보이고 있다.

역사 문화를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고자 할 때 분명한 것은 단순히 언어 기능의 측면이나 내용 지식의 측면 중 한 가지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역사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두 가지 속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수-학습의 내용으로서 다루어질 역사 문화는 한국 사회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도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상호문화적 이해와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내용의 학습과 동시에 외국어 습득을 목표로 하는 내용 중심 교수의 관점이 역사 문화 교수-학습에서 유용한 것이다.

Ⅲ.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전제와 고려 사항

이 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역사 문화, 교수 설계, 내용 중심 교수의 개념을 실제에 적용하기에 앞서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의 교수 설계를 위한 전제와 고려 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그 중 ‘전제’는 이 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서 큰 틀의 원리가 될 것이며 ‘고려 사항’은 역사 문화 교수를 실천하기 위해 살펴야 할 제반 조건이 될 것이다.

1.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전제

역사 문화 교수 설계와 관련해 이 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전제는 “역사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이자 문화 교육이다.”라는 점이다. 문화 교육은 지식 정보의 전달만이 아닌 실제적이고 활용도 높은 사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최정순, 2013: 5-7). 그리고 문화 요소 교육이 한국어 문화 교육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며 문화 요소의 학습이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여 말하거나 쓰기와 같은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윤여탁, 2002: 202-205). 실제로 한국어 교실에서도 역사 문화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자료와 활동으로 제시되며 이 기능들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역으로 학습자의 언어 기능이 신장될수록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한다.

두 번째 전제는 “외국 문화로서의 한국 문화(Korean culture as a foreign culture)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 문화

연구의 일반적 경향은 한국 문화를 일정한 지역적 공간에서 구현되는 자체 완결적인 실체로 보고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한국 문화가 갖는 고유하고 이상적인 유형을 파악하는 일이었다(김중순, 2010: 323-325). 역사 문화 교육용 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역사 교육계에서 출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전국역사교사모임, 2010)』와 한국어 교육계에서 개발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박성준 외, 2011)』 등을 보면 분명히 외국인 독자 또는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형화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외국 문화로서의 한국 문화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인식과 관점 또한 하나일 수 없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⁶⁾

다음으로 세 번째 전제는 “역사 문화 현상뿐만 아니라 심층적 기저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현재의 역사 문화 교육은 현상적 측면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문화의 범주가 매우 넓고 소개할 문화 항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문화 교육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특성상 설명 어휘와 텍스트 길이의 제한이 따르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 문화 현상의 중요도, 언어적 난이도, 접촉 빈도, 현재와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제시 항목의 수를 조절한다면 어느 정도의 체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사

6) 이와 관련해 김중순(2010, 325-331)은 우리가 그동안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며 ‘전통 문화를 문화적 전통으로’, ‘민족 문화를 교차 문화로’, ‘단일문화주의를 다문화주의로’ 보는 패러다임의 천이(遷移)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적(通史的) 방법, 시대 중심 학습법(patch/era method), 주제·토픽 학습법, 발전 계열법(line of development) 등과 같은 역사 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진대연, 2015: 158-159).⁷⁾

네 번째 전제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수의 목표는 과거의 지식을 나열하여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인과 더 잘 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화의 내용이 과거 지향적으로 흐르기 쉬웠으며(조향록, 2010: 303) 교재에 제시된 자료 역시 전통 문화에 근거한 것의 비중이 높았다(강현화 외, 2011: 166). 그런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보다 자신이 실제 접하게 되는 현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또한 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지금-여기-나’로부터 교육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외국인이 보게 되는 현재의 한국 모습을 역사 문화 교수의 단초로 삼아야 하며 과거의 역사적 정보는 현재적 관련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전제는 “역사 문화 학습은 상호 문화적 이해와 소통 능력의 신장으로 연결된다.”라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서 체득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준으로 타자(他者)

7) 김한중(2007: 134-152)에 예시된 역사 교육 내용 조직 방법 중 통사적 방법과 시대 중심 학습법은 연대순에 따르는 방법이며 주제·토픽 학습법과 발전 계열법은 주제나 토픽을 단위로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 중 통사적 방법보다는 나머지 세 방법이 한국어 교육에 유용해 보인다. 세 가지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시대 중심 학습법은 특정 시대를 선택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학습하고 당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제·토픽 학습법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선정하여 여러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며 쟁점이 포함되기도 한다. 발전 계열법은 주제 학습을 토대로 하되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방법으로 일반적 인 통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를 판단한다. 그런데 외국어 학습은 기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때 자문화와는 다른 타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양자(兩者)의 차이를 인식하고 타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타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된다. 그런데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이입(empathy)은 역사 교육의 초점 중 하나인 ‘과거와 현재의 시차를 뛰어넘는 상호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타문화로 작용하게 되는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학습자가 시공간상의 타자를 이해하고 자신도 타자화해 보게 됨으로써 상호문화적 이해가 심화되고 그와 함께 소통 능력도 신장된다. 신윤경(2010: 227-235)에서 한국문학을 활용한 역사 문화 교육으로 공감적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꾀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다섯 번째 전제와 맥을 같이한다.⁸⁾

2.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수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의 신장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역사 문화 교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병행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및 교사와 교재의 문제 등까지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사 문화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논의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개별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

8) 그 밖에 더 다양한 전제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가 역사 문화 교수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교수-학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미시적인 차원의 교수 설계는 최선의 수업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역사 문화 수업을 설계하는 데 교수 매체의 체계적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앞에서 소개한 ASSURE 모형을 응용해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⁹⁾

1) 학습자

학습자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은 크게 일반적 특성, 구체적인 출발점 능력, 학습 스타일 등이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력, 문화적 배경, 학습 목적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출발점 능력은 언어 능력, 배경 지식이 될 것이며 학습 스타일은 학습 동기, 인지 성향, 정보처리 습관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학습 지역, 학습 집단의 민족적 단일성/이질성 등이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학습자 분석에서 고려될 수 있다.

2) 교수 목표

교수 목표 진술은 수업 대상(audience), 학습자 행동(behavior), 학습 조건(condition), 성취 수준(degree)의 4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30대 성인으로 구성된 6급 학습자가 20

9) ASSURE 모형에서 ‘방법, 매체 및 자료의 선택’과 ‘매체와 자료의 활용’을 통합하고 ‘교사’를 추가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원문적인 사항은 박숙희 외(2007)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역사 문화 교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는 필자의 역사 문화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세기 한국의 경제 발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후에 사전에 의지하지 않고 한국과 자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글을 써서 5분간 발표할 수 있다.”와 같은 목표가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통해 제시되는 것이다.

3) 교수 방법, 매체 및 자료

교수 방법, 매체 및 자료의 선택은 먼저 학습 과제에 적합한 방법과 그 방법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매체를 결정한 후에 매체에 맞게 기존 자료를 선택 또는 수정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를 거친다. 역사 문화의 교수-학습은 크게 교실 내 수업과 실세계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시 교수-학습 활동의 주도성에 따라 교사 주도 활동, 학습자 주도 활동, 독립 활동으로 구분된다. 교수-학습 매체는 교과서나 유인물 같은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DVD,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매체가 활용된다. 역사 문화 자료는 주제에 맞게 미리 확정된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매체를 통해 수집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다. 선택된 매체와 자료는 교사의 검토와 사용 환경 정비 후에 제시되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¹⁰⁾

10) 교실 내에서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문화 특강, 문화 주제 수업, 문화 감지 도구 등이 있으며 학습자 주도 활동은 역할극, 토론, 발표 등이 있다. 독립 활동은 도서관 활용, 동아리 참여 등이 포함된다. 실세계 활동으로는 교사 주도의 현장 학습, 학습자 주도의 프로젝트 활동, 독립적인 관찰 학습, 취미 활동 등이 해당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강승혜 외(2010: 232-261)를 참조하기 바란다.

4) 학습자 참여

수업의 모든 활동은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안되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과 같은 다중매체와 토론, 발표, 역할극 등의 학습자 중심적 활동을 활용하여 역사 문화 자료를 생동감 있게 접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을 개발하고 학습자에게 유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반응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5) 평가와 수정

교수-학습 활동이 끝나면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매체와 방법을 포함해 교수-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할 점은 수정한다. 학습자의 성취도는 공식적인 시험이 아니더라도 연습문제, 과제, 복습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교수 목표로 설정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매체와 방법에 대한 평가는 교수 자료의 효과성, 비용 대비 효용성, 소요 시간의 적절성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6) 교사

역사 문화 수업에서도 역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역사 문화를 담당하는 교사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비판

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와 역사 문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이야기로 엮을 수 있는 수업 기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방적인 태도의 예를 들면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으로 말하는 학습자의 인식도 객관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모든 한국어 교사에게 이러한 자질들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수업과 언어 수업을 분리하여 통합하는 팀 티칭의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IV. 역사 문화 교수의 실례

이 장에서는 역사 문화 교수의 실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부설기관과 국외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교수-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사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다양한 사례 가운데 이 둘을 선정한 이유는 교수-학습 지역(국내와 국외), 수업의 연속성(대학의 집중과정과 한글학교의 주말과정), 학습자의 출신(외국인과 재외동포), 학습자의 연령(성인과 아동) 등에서 서로 대비되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4가지 변인 이외에 학습자의 언어 수준까지 고려하여 전자의 경우는 고급을 후자의 경우는 초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국내 대학 부설기관의 역사 문화 교수 사례

1) 교육과정 개요¹¹⁾

이 교육과정은 서울 소재 한 대학의 6급에서 10주간의 집중과정 중 매주 4시간씩 다국적 출신의 외국인(일부 재외동포 포함)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역사 수업을 위해 구성된 것이다. 이 기관에서는 6급 과정의 일반 목표에서 “(…)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을 받게 한다. (…)”라고 명시하며 역사 수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해방’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20세기 한국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다.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한다.

교육 내용은 한국 현대사의 6대 주제를 근간으로 하며 1개의 문화 주제와 판문점 견학을 더해 8회 분량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방법은 주제 중심의 기능 통합형 방식을 채택한다. 교육 자료는 텍스트, 그림, 사진, 다이어그램, 통계자료 등과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한다. 수업의 구성은 ‘비디오 사전 시청 → 각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연구 → 비디오 요약본과 읽기 자료를 활용한 설명 → 역사 수업 주제에 대한 토론 → 역사 수업 주제별 쓰기 → 역사 질 문지 활용 복습’의 순서를 기본 틀로 이루어진다. 비디오 자료는 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해방’ 시리즈를 활용하였으며 세부 주제별로 뉴스 등의 인터넷 동영상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11) 이 부분은 필자가 비교적 오랫동안 관여하였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2000-2005년에 진행한 ‘한국 현대사’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표 1> 국내 대학 부설기관의 역사 문화 교육 내용, 방법, 자료 예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자료
<p>① 빈곤으로부터 해방: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을 조명한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의 부산물인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다.</p> <p>② 독재로부터 해방: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을 살펴본다.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의 노력과 그 역사적 의미 등을 다룬다.</p> <p>③ 전쟁으로부터 해방: 6.25 전쟁이 한국인에게 준 영향과 한국인이 전쟁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본다. 전쟁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그 의미와 함께 살펴본다.</p> <p>④ 무지로부터 해방: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의 교육열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p> <p>⑤ 이태올로기로부터 해방: 6.25 전쟁은 한국인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었다. 남북한의 이태올로기 대립이 한국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를 살펴본다.</p> <p>⑥ 식민으로부터 해방: 일본 식민지 통치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본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그 시대를 산 이광수라는 한 개인의 생애도 검토한다.</p>	<p><교육 방법></p> <p>① 주제 중심의 교육</p> <p>② 듣기/보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 통합형 교육</p> <p>③ 역사적 인물, 사건, 배경, 결과 등에 대한 지식 전달</p> <p>④ 수업의 구성: 비디오 사전 시청 → 각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연구 → 비디오 요약본과 읽기 자료를 활용한 설명 → 역사 수업 주제에 대한 토론 → 역사 수업 주제별 쓰기 → 역사 질문지 활용 복습</p> <p>⑤ 비교문화적/상호문화적 접근법</p> <p><교육 자료></p> <p>① 교재는 텍스트, 그림/사진, 다이어그램, 통계자료 + 비디오테이프/웹 자료 등으로 구성됨</p> <p>② KBS 다큐멘터리 ‘해방’ 시리즈</p> <p>③ 읽기 자료의 구성: 주제, 주요사건 요약일지, 비디오 내용 요약문, 단어, 활동 자료</p> <p>④ 활동 자료의 구성: 생각해 봅시다(비디오 시청 전 활동), 이야기해 봅시다(비디오 시청 후 활동),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글을 써 봅시다(역사 쓰기 과제)</p>

2) 교육과정 분석과 제언

이 교육과정 사례를 우선 내용 중심 교육과정 개발 지침의 순서에 따라 분석해 보고 나머지 논의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지침인 ‘테마’의 측면에서 보면 이 교육과정은 한국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기대하는 6급 학습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현재의 한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난 세기의 역사를 ‘해방’이라는 하나의 중심 주제로 선택하고 경제, 정치, 남북관계, 교육 등의 순서로 테마의 순서를 엮은 점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능력이 관련 내용을 적절히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텍스트’의 측면에서는 테마에 관한 내용을 읽기 자료뿐만 아니라 비디오나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출현하는 어휘와 제시하는 사건의 맥락이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심 테마를 구성하는 하부 내용 요소들인 ‘소주제’의 선택은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남북관계의 경우 전쟁의 피해, 평화의 중요성, 이산가족 문제 등 비교적 이야기하기 용이한 소주제가 등장할 수 있지만 이념이나 식민의 경우 그보다 난해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자국의 여러 상황들과 비교해 보게 하는 상호 문화적인 활동과 쓰기 과제가 내용 및 언어 사용의 공통점으로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과제’는 비디오 시청에서부터 탐구 학습의 요소를 담고 있으며 듣기, 읽기, 말하기 과제 및 이를 종합하는 쓰기 과제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교수 목표를 실현하며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다양하게 설정된다. 주제와 주제 사이, 과제와 과제 사이의 ‘이행’ 활동은 교재와 수업의 구성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의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20세기 한국 현대사’라는 특정 주제 중심으로 역사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시대 중심 학습법, 주제·토픽 학습법의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문화 현상을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어휘와 표현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소 어렵거나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 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수업에서 관련 매체나 현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보완해야 한다. 또한 깊이 있는 역사 수업에 대해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일부의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외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역사 문화 교수 사례

1) 교육과정 개요¹²⁾

이 교육과정은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산하 역사문화교육위원회에서 재외 주말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용으로 개발한 ‘한국 역사 문화 표준교육과정’이다. 28주간의 수업을 전제로 초급 1·2, 중급 1·2, 고급 1·2 등 총 6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연속성 없이 일주일에 불과 3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한글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초급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급과 고급에서 반복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역사 문화 주제 18개가 동일한 단원명으로 전체 6단계를 관통하고 있으며 각 주제가 교수-학습 활동과 내용 면에서 수준별로 심화되는 구성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초급 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2) 이 부분은 최미영 외(2014)가 집필한 『재외 주말 한국학교용 한국 역사문화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필자의 견해를 보탠다.

- ① 한국 문화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기른다.
- ② 한국 역사에 대한 기초적이고 주요한 사실을 교사의 간단하고 쉬운 설명을 통해 이해하고 주어진 학생 활동을 통해 재확인한다.
- ③ 학생과 한국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생이 거주하는 나라의 문화와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하여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 ④ 한국 문화와 거주국 문화의 가치를 모두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기른다.
- 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 자신의 뿌리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진 학생으로 자라도록 한다.

초급 과정은 그 대상을 ‘정규학교 2학년에서 4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위주로 하되 유치원생과 1학년생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구성을 보면 학습 목표는 각 단원에서 학생들이 꼭 배우고 성취해야 할 사항을 1-2가지의 문장으로 기술하고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연습할 활동의 방향을 정해 주며 그 예를 제시한다. 확장 및 평가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배우게 된 내용을 정리, 평가하고 심화하게 되어 있으며 키워드는 그 단원에서 꼭 배워야 할 단어를 제시한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각각 18개의 역사 문화 주제가 순환적으로 제시되는데 그 중 17단원의 예를 들면 모두 ‘한국전쟁과 분단의 아픔, 남북관계’가 해당 주제이다. 초급 단계의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역사 문화 교수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도록 초급 1과 초급 2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활동 방향을 발췌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외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역사 문화 학습 목표 및 활동 방향 예시

	초급 1	초급 2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던 민족과 국토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되었음을 안다. - 지금도 휴전중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함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이 일어난 때와 피해 및 그 결과를 안다. - 현재도 분단 상태임을 보여 주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가 있음을 안다.
활동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지도에 분단 상황을 표시하여 남북 분단의 현실을 안다. - 평화적인 방법으로 꼭 통일이 되어야 함을 알며 <우리의 소원>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말할 수 있다. - 한국전쟁의 피해 및 그 결과를 말할 수 있다. - 현재도 분단 상태임을 보여 주는 장소를 말할 수 있다. - ‘비무장지대의 아이들’을 읽고 학생들이 역할극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안다. - <금강산> 노래를 통하여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식한다.

2) 교육과정 분석과 제언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뿌리교육’으로 대변될 수 있는 한민족 후예의 정체성 함양이다. 따라서 역사 문화 교육은 외국인 대상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강조되어 왔다(진대연, 2015: 164). 그런데 과거에는 내국인용으로 개발된 교재나 현지에 소개된 한국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재외동포 학습자의 연령이나 거주 국가 등 학습 대상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역사 문화 교재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다. 이 교육과정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내용 중심 교육과정 개발 지침인 테마, 소주제, 연결고리, 과제, 이행의 제 측면이 비교적 고르게 반영되어 있다.¹³⁾ 재외동포 후속세대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정형근, 2016: 184)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역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와 교사의 지도 가능성을 고려한 점도 특징으로 꼽을 만하다. 역사를 시대 순으로 다루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와 인물에 중점을 두어 정리한다는 점에서 발전 계열법을 적용하고 내러티브 서술을 지향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앞 절에서 예시한 국내 대학 부설기관의 역사 문화 교육 과정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이는 주로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재외동포 학습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에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육과정의 어휘 목록과 인물 목록에 수록된 인물명 중 일부가 중복되어 있고 어휘의 사용 빈도, 난이도, 중요도 등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 등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내용 곳곳에 재미 한인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서 지역 교육과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특징으로 부각된다.

V. 결론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경험하는 한국 문화와 이에 대한 관심은

13) ‘텍스트’는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취업, 유학 등의 동기로 발전하거나 적극적인 한국어 학습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와 문화의 표층적인 ‘이미지’나 ‘아이콘’이 한국어 초보 학습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기는 하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을 이해하게 하려면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한편 문화는 모두 역사적 소산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를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한국 문화 현상의 이면(裡面) 또는 기저(基底)까지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만큼 더 수준 있는 한국어 실력을 기르게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를 교수하고자 할 때 무엇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 문화의 교수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주요 개념인 역사 문화, 교수 설계, 내용 중심 교수에 대해 검토하고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전제와 고려 사항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과 국외 소재 재외동포 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 문화 교수의 실례를 제시해 보았다.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역사 교육, 교육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이론과 논의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 분야의 논의를 포괄하려다 보니 역사 문화 교수 설계의 내용이 다소 피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한계라 하겠다. 다음 논의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6. 11. 15. 투고되었으며, 2016. 11. 22. 심사가 시작되어 2016. 11. 30.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6. 12. 6.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참고 문헌

- 강승혜(2012), 「한국 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9-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38.
- 강승혜·김성희·박성태·임형재·최주열·황인교(2010),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 강진숙(2010), 「한국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화·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중섭·김정숙·이혜영·김선정·이정희(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준순(2010),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 교육』, 소통.
- 김한중(2007),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함께.
- 김혜영(2011), 「한국학과 의 접목을 위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1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97-104.
- 박동호 외 10인(200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 박성준·이선이(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한국학교재시리즈 2), 한국문화사.
- 박숙희·염명숙(2007), 『교수-학습과 교육공학(2판)』, 학지사.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9), 『교육학 대백과사전 ①』, 도서출판 하우.
- 신윤경(2010), 「문학을 활용한 일제 강점기 역사문화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7-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219-237.
- 양호환·이영효·김한중·정선영·송상현(2009),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 윤여탁(2002), 「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박영순 편)』, 한국문화사, pp.191-208.
- 윤여탁(2013),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 이미향·엄나영·곽미라·김은희·성은주·김미경·손시진(2013), 『한국어교육과 매

체언어』, 역락.

전국역사교사모임(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휴머니스트.

정형근(2016), 「재외동포 후속세대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의 방향(제언)」, 『이중언어학회 제34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pp.169-189.

조항록(2010),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 한국문화사.

진대연(2011), 「한국어 수업 내용으로서의 한국사 교육 모형에 대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1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84-94.

진대연(2015), 「한국 문화 교육의 개선을 위한 역사 문화 교육과정 시론」, 『교육문화연구』 21-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pp.141-177.

최미영·김현주·박은경(2014), 『재외 주말 한국학교용 한국 역사문화 표준교육과정』,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북가주 역사문화교육위원회.

최정순(2013),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27, pp.5-28.

KOTRA(2011), 『문화한류를 통한 전략적 국가브랜드 맵 작성연구』, 국가브랜드위원회·KOTRA·산업정책연구원.

Celce-Murcia, M.(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Heinle & Heinle.

Samovar, L. A., R. E. Porter & L. A. Stefani(1998),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3rd ed.), Wadsworth.

■ 국문초록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수 설계에 관한 연구

진대연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를 교수하고자 할 때 무엇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 문화의 교수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II장에서는 주요 개념인 역사 문화, 교수 설계, 내용 중심 교수에 대해 검토하였고 III장에서는 역사 문화 교수 설계를 위한 전제와 고려 사항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IV장에서는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과 국외 소재 재외 동포 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 문화 교수의 실례를 대비해 보았다.

‘내용 있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역사 문화 교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를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한국 문화 현상의 이면 또는 기저까지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역사 문화 교수를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만큼 더 수준 있는 한국어 실력을 기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역사 교육, 교육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이론과 논의를 통합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교수 설계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이 이 글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여러 분야의 논의를 포괄하려다 보니 역사 문화 교수 설계의 내용이 다소 피상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한계라 하겠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역사 문화, 교수 설계, 내용 중심 교수

■ Abstract

Instructional Design for Teaching Korean History and Culture as a Foreign Culture

Jin, Dae-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design a course and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or teaching Korean history and culture as a foreign culture, and how this instructional design can be implemented.

First, in chapter II, main concepts such as 'history and culture', 'instructional design', and 'content-based teaching' were reviewed. Second, in chapter III, premises and considerations were also examined for making an instructional design for teaching Korean history and culture as a foreign culture. Next, in chapter IV, examples of institutions in and outside of Korea, which have already implemented programs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interdisciplinary discussions from the fiel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culture education, Korean history education, and educational technology were integrated on the instructional design for teaching Korean history and culture as a foreign one.

[Key words] teaching Korean as an L2, teaching Korean culture as a C2, history and culture, instructional design, content-based teaching